

'91

전국 시립 무용단 송년 무용제

- 일시
1991년 12월 9일 (월) 오후7시
- 장소
인천시민회관
- 참가단체
서울 시립 무용단
부산 시립 무용단
광주 시립 무용단
목포 시립 무용단
창원 시립 무용단
인천 시립 무용단



프 로 그 램

2부

- 부산시립무용단 : **탐**

(출연 : 홍기태외 6명)

물욕, 애욕, 명예욕에 눈이 멀어 병들어
가는 인간의 생리를 춤으로 표현

- 광주시립무용단 : **백조의 호수중에서**

(출연 : 심민경외 3명)

국내 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세계적으로 수백 컴퍼니의 발레 레퍼터리로 정착이 된 작품이다.
이번 광주시립무용단의 "백조의 호수"는 로얄발레단의 VERSION에
기초한 안무재해석이 가미된 비극미의 승화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서울시립무용단 : **혼 령**

(출연 : 홍경희외 2명)

인간의 세계는 육체와 혼령이 같이 존재한다. 그 영혼의 세계에
깊이 파고들면 신과 공감을 이룰수가 있다.
영혼이 침취한 상태에서 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지를 돌연한 작품

- 인천시립무용단 : **환희의 빛과 소리**

(출연 : 윤순자외 20명)

우리의 전통악기인 썩가리를 이용하여 금빛 화려함과
채끝의 현란한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고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멋과 흥을 돋구어
학생들을 비롯, 일반시민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펼치고자 함.



안무자 / 홍민애

- 1967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무용과 졸업
-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문화방송창사 21주년 기념 대공연 '마당놀이' '발주부전' 안무보
-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경성대학교, 서울교육대학, 부산교육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역임
- 1988. 4. 1. 부산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5대)~현재



부산시립무용단



광주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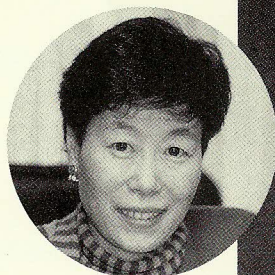
안무자 / 박금자

(경 력)

전남무용협회장, 전남북무용제 회장
전남대 강사 역임, 조선대학교수(현재)

(주요작표)

Swan Lake (2막) Serenade
Sleeping Beauty, 춘향전, Ei Amor Brujo,
Giselle, 심청전, 남도의 메아리, 오! 영원한
아침의 나라, 위대한 광주 아름다운 조국 세
계로 향하여 La Bayalere, 장희빈, 돈키호테
등



안무자 / 배정혜

1944년 서울생
발을 땀면서부터 무용을 시작해 12세 때 국립극장에서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한국 춤을 고루 익혔으며 숙대국문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작가 의식이 뛰어난 무용가라는 평을 들어왔으며 작품세계가 문학적, 민속적 범위까지 확대되어 넓고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1977년 "타고 남은 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안무를 시작했고 이후 "대화" "이땅에 불꽃으로 살아" "유리 도시" 등 10여편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발표하는 등 괄목할만한 창작활동을 벌여왔다.

국립극악원 상임안무자를 거쳐 1989년 1월 서울시립무용단의 단장직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립무용단

◀ 공연 일정 ▶

91년 전국시립무용단 송년무용제

- 12. 6 (부산 문화회관)
- 12. 8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12. 9 (인천 시민회관)
- 12. 13 (대전 시민회관)